'火魔' 휩쓴 자리… 불제자가 지킨다

〈화마〉

자제공덕회, 캘리포니아 산불 이재민 구조 활동 '활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 '블루 컷 파이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세계최대 불교자원봉사단체인 '자제공덕회'가 생존자들을 위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 화제다.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8월 18일(현지시간) "비구니 스님이 세운 비영리 국제기구 자제공덕회 회원들이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 카운티 산불과 루이지애나에서 발생한 홍수의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물품을 나르는 등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최고 101㎢ 면적이 잿더미가 됐다. 여의도 면적의 34배 이상이다. 미 당국은 거주민 8만2000여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소방차 178대, 지역 소방대 26곳, 화재 진압용 비행기 10대, 헬기 17대, 소방대원 1천500명 등을 동원했다.

'블루 컷 파이어'는 지난 16일 샌 버나디노 산과 성 가브리엔 산을 잇는 도로인 카혼서 시작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온 건조한 기후 때문에 화마는 마른 나무와 덤불을 태우며 급속도로 거세졌다.

자제공덕회 자원봉사자들은 산불과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 미국 적십자회와 함께 식사 · 의류 등을 제공하는 재난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자제공덕회는 대만서 페트병으로 만든 '기적의 담요'를 이재민들에게 제공하고, 2,100여 피해 가족을 위해 84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그들은 '블루 컷 파이어'로 인한 피해지역 뿐 아니라 미국 내 20여개 자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서 발생한 산불 '블루 컷 파이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세계최대 불교자원봉사단체인 '자제공덕회'가 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 화제다. 사진출처=NBC뉴스

세계적 불교봉사단체 '자제공덕회'
여의도 면적 34배 이상 태운
미국 '블루 컷 파이어' 피해현장서
구호물품 지원·84만 달러 모연
이 외 美 20곳 재해 현장서 활동

연재해 현장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웨스트버지니아서 발생한 홍수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36만 달러를 모연한 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자제공덕회는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신도 및 자원봉사자들이 증엄 스님의 지도아래 부처님의 이상을 실천해 가는 독특한 불교조직이다. 1966년 4월 14일 대만 보명사서 '불교극난자제공덕회'란 명칭으로 출범, 초기부터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자원봉사 및 후원단체로 활동을 시작했다.

자제공덕회의 주요 사업은 자선, 의료, 교육, 문화, 국제구호, 골수기증, 환경보전, 지역사회사업 등 크게 8개 영역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중 특히 강조되는 사업은 의료 사회사업으로 병원건립, 의료 전문인력 육성 등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또한 교육사업 분야서는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시설을 건립 ·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운동과 지역사회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자제공덕회 수퍼바이저 커티스 싱은 27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재난구조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그는 "현재 2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 재난이 일어나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명상, 후속 행동에도 좋은 영향 미쳐"

뇌과학자들, 명상 중인 스님들 뇌전도측정 연구 결과 발표

지난 5월 네팔서 명상 중인 티베트 스님들의 뇌파를 연구 한 과학자들이 마침내 뇌와 깨달음의 연관성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캐나다 언론 'CTV뉴스'에 따르면 빅토리아대학교 과학자들은 지난 5월부터 네팔 남체 지역에 머무는 티베트 스님들의 명상 중 집중력 차이를 연구했다. 뇌전도측정기구를 활용한 이 연구서 과학자들은 명상 전후의 집중력 차이를 밝혀냈다.

빅토리아대학과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가 공동 작업한 이번 실험의 총괄을 맡은 빅토리아대 올라브 크리골슨 뇌과학자는 "우리는 그들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명상을 하면 통찰력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올라브 크리골슨 팀은 스님들의 두뇌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뮤즈' 헤드밴드를 사용, 27명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쉬고 있을 때, 명상을 하고 있을 때, 비디오 게임을 할 때로 나누어 뇌파를 측정했다.

과학자들은 스님들이 명상을 하고 있을 때 뇌가 가장 이완되면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명상 후 비디오게임을 한 스님들은 그들의 뉴런(neuron)이 시각적 자극에 더 잘 반응하는 등 명상이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월효과가 있는 것도 밝혔다.



빅토리아대학교 과학자들은 5월부터 티베트 스님들의 명상중 집중력 차이를 밝혀냈다. 사진출처=CTV뉴스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뇌 활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올라브 크리골슨은 이 실험 외에도 고도(高度)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하고 있다. 고산지대에 있는 불교사원을 방문한 올라브 팀은 에베레스트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있는 생리학자들과 함께 스님들이 어떻게 고산병에 걸리지 않는지도 연구 중이다.

올라브 크리골슨은 "우리가 진행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모두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지 2016년 7월 20일 자 1106호 참조〉

이보형 객원기자

"왜소증 승려는 자격 없어" 태국서 논란

푸삭사원 세름삭 탐마사로 스님
구족계 수지 한 달 만 승적 박탈
신장 99㎝ 체중15㎏ 왜소증 이유
지역 신도들 "안 된다" 큰 반발

큰스님 말 한마디에 승적을 박탈당한 승려 소식이 태국 현지서 논란이다. 자격 박탈 이유가 왜소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 크다.

태국 인터넷언론 '프라차타이'는 8월 19일 "태국 남동부 소이 다오 지역 '탑창 사원' 주지 대변인이 지난 8월 16일 열린 승가회의서 '푸삭 사원' 소속 세름삭 탐마사로 승려 파직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승려계를 받은 지 겨우 한 달째인 세름삭 승려의 파직 이유는 '왜소증'이다. 세름삭 승려는 신장 99cm, 체중 15kg에 불과하지만 불심이 깊어 이에 감동한 마을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왜소증' 때문에 승적 박탈 위기에 처한 세름삭 승려(사진 맨 오른쪽). 사진출처=프라차타이

그러나 최근 승가회의서 익명의 큰스님은 세름삭 승려의 파직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스님은 "신장이 너무 작은 사람은 계율에 의해 승려 자격이 없다"며 "승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름삭의 승려 지위를 박탈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승가에 계속 남아있길 원한다면 '난(Nayn · 사미)' 신분으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태국 불교계서 '난'은 20세 이하 사미를 일컫는 말로 올해 21살인 세름삭 승려에게는 맞지 않는 위치다.

이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과 누리꾼들은 "세름삭 승려가 승가를 떠나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현지 민심과는 달리 세름삭 승려의 자격 박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태국 신문 '카오솟'은 '다나이 프리차페름싯' 탐마삿 대학 불교학과장 겸 교수의 말을 인용해 "불가 계율서 왜소증을 앓는 사람은 승려직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세름삭 승려는 언론과 인터뷰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승려직을 유지하고 싶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세름삭 승려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서 "승복을 벗더라도 부처님과 불교의 가르침을 계속 따를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승희 수습기자

'상상초월' 불교 애니메이션, 북미 개봉

'쿠보 앤 더 투 스트링스', 8월 19일 극장가 출범

불교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쿠보 앤 더 투 스트링스(Kubo and the Two Strings)'가 8월 19일(현지시간) 북미서 개봉해 주목받고 있다.

불교전문지 'Lion's Roar'은 8월 19일 애니메이션 제작사 라이카(Laika)가 제작하고, 라이카의 최고경영자 트래비스 나이트가 감독을 맡은 '쿠보 앤 더 투 스트링스'를 소개했다.

'쿠보 앤 더 투 스트링스'는 불교세가 강한 일본의 한 마을서 '오봉 축제(お盆; 양력 8월 15일 조상을 기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일본의 명절. 대부분 불교식으로 행해짐)'에 참가하려는 주인공 쿠보의 모험담을 다룬다.

쿠보는 할아버지 문킹의 악한 영혼을 피해 어머니와 함께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된다. 할아버지와 이모 영혼들은 쿠보의 눈을 앗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엄마는 쿠보를 보호하려다 죽게 된다. 이후 쿠보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아버지의 숨겨둔 갑옷을 찾기 위해 모험을 시작한다. 비현실적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쿠보가 곳곳 장애물들을 헤쳐 가는 과정은 '상상력을 초월한 극적 이야기'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쿠보는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불교적 진리를 깨닫게 된다.



애니메이션 '쿠보 앤 더 투 스트링스' 장면 중 일부. 사진출처=Lion's Roar

트래비스 감독은 "아내와 처가집 식구들이 모두 불교 신자기 때문에 불교와 매우 친숙하다"며 "이 영화를 통해 불교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등 고통은 반드시 겪게 된다'는 불교적 가치관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